최태원 "이사회 중심 '지배구조 혁신'… 투명성 증명할 것"

SK그룹 '거버넌스 스토리' 박차
'사외이사 강화' 경영진 감시·견제
경영정보 공유, 소통 확대 등 추진
연말부터 CEO평가·보상 결정키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SK

SK그룹이 이사회 경영을 대폭 강화하며 '거버넌스 스토리'에 박차를 가한다. 총수를 포함한 경영진을 감시하는 것뿐 아니라, CEO 후보 추천과 평가 및 보상 등 막대한 권한을 부여한다.

SK는 지난 6월부터 최태원 회장과 13개 관계사 사내외 이사들이 3차례에 걸쳐 '거버넌스 스토리 워크숍'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거버넌스 스토리'는 지배구조를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혁신하기 위한 과정과 전략을 의미한다. 최 회장이 올 초 경영 화두로 제시하며 그룹차원에서 발빠르게 구축하고 있다.

거버넌스 스토리 워크숍도 그룹차원에서 추진 중인 '지배 구조 혁신'을 위해 이사회 역할 및 역량 강화와 시장과의 소통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토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3차례에 걸친 난상토론 끝에 SK 각 관계사 이사회가 독립된 최고 의결기구로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사회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경영진 감시와 견제를 위해 사외이사들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한 사외이사 역량 강화 ▲전문성 등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 발굴 ▲회사 경영정보 공유 및 경영진과의 소통 확대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지난 7일 열린 3차 워크숍에서는 SK㈜ 등 계열사가 올들어 이사회 산하에 '인사위원회'와 'ESG위원회'를 신설해 핵심 경영활동을 이사회에 맡기는 등 이사회 중심 경영을 하고 있는데 적극 공감하고, 다른 관계사 이사회에도 이같은 방안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올 연말부터 CEO 평가와 보상을 각 사 이사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화상회의 등 비대면으로 이뤄진 이번 워크숍에서 사외이사들은 보다 투명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일하는 이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고, 최태원 회장과 CEO들이 의견을 보탰다.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인 김종훈 사외이사는 지난 7일 3차 워크숍에서 "사내이사들은 CEO와의 관계 등으로 경영권 감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사외이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문성뿐 아니라 회사 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주인의식과 참여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K(주) 이사회 주주소통위원인 이찬근 사외이사는 "국내외 주주 및 투자자 등을 만나보면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이해 충돌 여부, CEO 평가 및 보상 프로세스 등에 대한 관심이 많은 듯 하다"며 "충분한 소통과 정보 제공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최태원 회장도 "거버넌스 스토리의 핵심은 지배구조 투명성을 시장에 증명해 장기적인 신뢰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사외이사들이 CEO와 함께 IR 행사(기업설명회)에 참석해 시장과 소통하고, 내부 구성원들과도 소통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워크숍을 계기로 그룹 관계사 사내·외 이사들이 수시로 지배구조나 경영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전문 역량도 키울 수 있는 '소통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SK그룹은 2007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지배구조를 적극 개편해 왔으며, 올해 수펙스추구협의회 17개 관계사 중 10개 상장사 사외이사 비중을 60%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월 SK㈜ 이사회에서는 최 회장과 이찬근 사외이사가 해외 투자에 반대표를 던졌음에도 안건이 가결되는 등 실제 경영 투명성이 높아지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시장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프리미엄급 지배구조 완성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김태경 포스텍 교수

박경덕 UNIST 교수

김익수 가천대 교수

김진국 KAIST 교수

이종석 GIST 교수

허충길 서울대 교수

공병돈 포스텍 교수

SAMSUNG 22개 미래기술에 341억 지원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2021 하반기 지원 연구과제 발표

삼성전자가 지원할 새로운 미래 기술을 발표했다. 희귀 질병을 치료하고 미래 산업 기술 기반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연구 과제가 새로 지원을 받게됐다.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과 삼성전자 미래기술육성센터는 11일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에서 지원할 2021년 하반기 연구 과제 22개를 발표했다.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은 대한민국 기초과학 발전과 세계적인 과학기술인 육성 등을 목표로 2013년 삼성전자가 1조5000억원을 지원한 과학기술 연구지원 사업이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지원 과제를 발표한다. 그동안 9215억원이 705개 과제 1만3000명 연구진에 지원됐다.

다른 기관과 단체 등도 심사와 운영 방식을 벤치마킹하며 국내 연구문화 개선과 미래 기술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합숙을 거칠 정도로 전문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와 실패에도 책임을 묻지 않는 연구자 주도식, 추후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출원 지원 등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때까지 지원을 이어가고 글로벌 리서치 심포지엄(GRS)을 개최해 연구 성과를 세계 석학들과 공유하고 토론하는 기회까지 제공한다는 점에 호평이 이어지고있다.

올 하반기에는 총 22개 과제에 연구비 340억7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기초과학 분야 10개에 172억7000만원, 소재 분야 6개 92억원, ICT 분야 6개 76억 원 등이다.

기초과학 분야는 과학적 난제를 해결하고 희귀 질환 치료 기여 등 10개 연구 과제를 선정했다. 수리, 물리, 화학, 생명 분야에서 학술적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거나 질병 치료의 근원적 접근

과학 발전, 과학기술인 육성 목표
9년간 705개 과제, 1.3만 연구진 지원

기초과학 10개 분야에 173억 투입
소재분야에 92억, ICT에 76억 등

등 파급 효과가 예상되는 과제들이다.

포스텍 생명과학과 김태경 교수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 물리학과 박경덕 교수, 가천대 미생물학과 김익수 교수가 지원 대상이다. 각각 새로운 유전체 기반 긴경활동 탐지기술과 나노광학 플랫폼 창출, 세포 분화 추적 등으로 과학계 난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전 질환 치료제와 전자 소자 발열 문제 해결 등 폭넓은 소재 분야에서도 6개 과제를 지원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의과학대학원 김진국 교수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물리·광과학과 이종석 교수 등 과제다.

김진국 교수는 mRNA 특정 부위에 결합해 단백질 발현량을 증가시키는 유전자를 발굴, 이종석 교수는 나노 크기의 계면에서 일어나는 열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연구로 지원을 받게 됐다. 희귀 질병 치료와 반도체 발열 해결에 단초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ICT 분야에서 선정된 6개 과제는 차세대 통신과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주제로 선정됐다.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허충길 교수와 포스텍 전자전기공학과 공병돈 교수 등이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허충길 교수는 삼성전자 지원을 받아 복잡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안전성을 빠르게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 공병돈 교수는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켜 높은 출력을 내는 RF 소자를 개발하게 된다. 자율주행과 의료, 금융 등 분야 안정성을 높이고 6G와 레이더 등 미래 산업 핵심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지원 과제는 전세계 학회에서 많은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최상위 국제학술지에만 논문 420건을 게재하는 등 국제 학술지에 2550건의 논문을 소개했다. 지구 온난화 해결과 차세대 전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바 있다.

삼성전자는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외에도 '함께가요 미래로! 인에이블링 피플'이라는 CSR 비전 아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재웅 기자 juk@

신세계百, 지하 1층에 명품관 '파격 변화'

경기점, 1년간 2개층 리뉴얼 오픈
명품·화장품 전문관 면적 2배 늘려

지난 8일 1년 간 리뉴얼 끝에 연 신세계 경기점 지하 1층 명품 전문관의 모습.

신세계 경기점이 1년 여간 리뉴얼을 거친 끝에 명품 전문관을 지하 1층에 배치하는 파격 변화를 선보였다. 이 같은 배치는 업계 최초다.

신세계 경기점은 지난 8일 지하 1층~지상 1층 2개 층에 명품·화장품 전문관을 1년 간 리뉴얼을 거쳐 새롭게 열었다.

명품·화장품 전문관의 총 영업 면적은 3600여평(11,841㎡)으로 기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지하 명품관 한가운데에는 천장을 뚫어 층고를 높인 '보이드(Void)'라는 새로운 공간을 처음 선보인다. 이태리 베니스의 루프탑에서 영감을 얻어 설계한 보이드는 전망대서 운하를 보듯 지하 1층과 1층을 동시에 둘러볼 수 있는 구조다.

50여평 규모의 이 공간에서는 럭셔리 브랜드들의 팝업 행사를 비롯해 스타필드의 별마당 도서관처럼 공연과 강연, 전시 등을 선보이는 경기점의 대표 문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리뉴얼을 통해 새롭게 입점한 럭셔리 브랜드도 있다. 마르니, 막스마라, 필립플레인, 분더샵 슈 등 26개 신규 브랜드가 경기점에 입점했다. 기존에 있었던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인 발렌시아가, 루이비통, 구찌 등도 순차 리뉴얼 오픈을 준비 중이다.

/김서현 기자 seoh@

이마트24, 경영주 대상 카톡 챗봇 서비스

이마트24가 경영주의 점포 운영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주 대상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를 오픈한다.

이마트24는 그동안 콜센터를 통한 경영주의 문의 내용을 분석해 ▲상품·마케팅·영업▲물류·시스템·시설▲재무·복리후생·소모품▲커뮤니티·CSR·창업 등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 카카오톡 챗봇으로 안내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상품 및 행사상품 안내, POS 사용법, 경영주 복리후생 등 경영주들이 자주 문의하는 내용과 점포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경영주들은 카카오톡 앱 실행e 경영주 카카오톡 챗봇 URL 클릭 e e스토어/POS 아이디 인증 과정을 거치면 이마트24 경영주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경영주들은 점포운영을 하면서 궁금해 하는 점을 본사 콜센터나 본사 담당직원에게 문의해야 했지만, 이번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 도입으로 24시간 손쉽고 편리한 비대면 상담이 가능해졌다.

경영주들이 자주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순, 반복 상담 문의에 신속한 응대가 가능하며, 콜센터 상담직원은 다른 복합 문의에 대한 응대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신원선 기자 tree6834@